

인재관(지하1층)

SK 그룹의 모태가 된 선경직물의 공장을 재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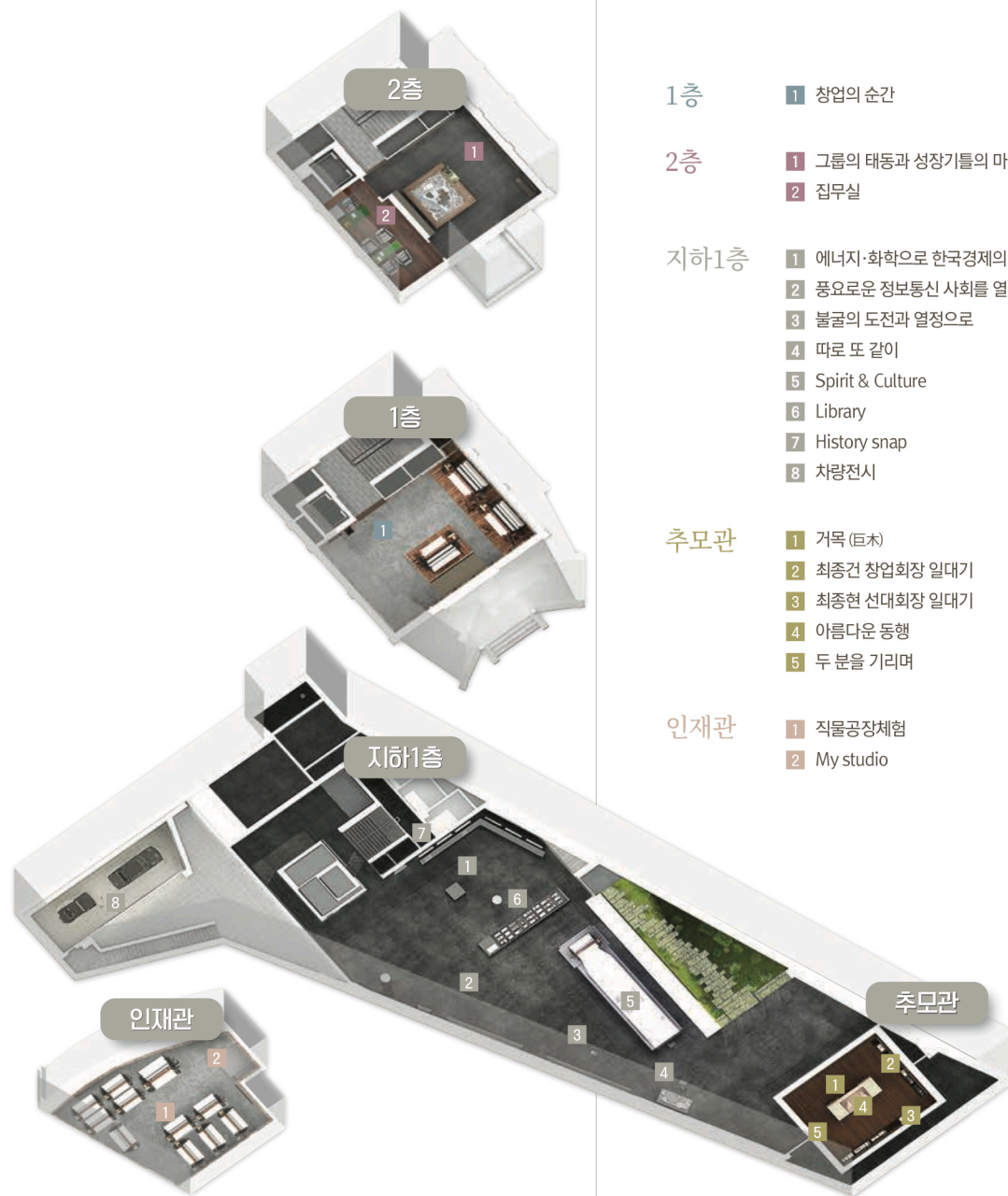
직물공장체험

선경직물 당시 사용했던 직기들과 함께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닭표안감, 봉황새이불감 등 다양한 히트상품을 생산했던 선경직물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My Studio

당시 선경직물 작업복을 입고 최종건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공간입니다.

기념관 안내



1층

1 창업의 순간

2층

1 그룹의 태동과 성장기들의 마련(1953~1973)
2 집무실

지하1층

1 에너지·화학으로 한국경제의 대동맥이 되다(1974~1991)
2 풍요로운 정보통신 사회를 열어가다(1992~1998)
3 불굴의 도전과 열정으로
4 따로 또 같이
5 Spirit & Culture
6 Library
7 History snap
8 차량전시

추모관

1 거목(巨木)
2 최종건 창업회장 일대기
3 최종현 선대회장 일대기
4 아름다운 동행
5 두 분을 기리며

인재관

1 직물공장체험
2 My studio

•

한국 경제의 두 거목
최종건 창업회장님, 최종현 선대회장님.
창업회장님은 이 땅에 SK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셨고,
선대회장님은 꿈과 희망이라는 거름을 주어
작은 나무를 큰 나무로 키우셨습니다.
이제 SK는 세계적 기업으로서
행복을 키워나가는 큰 숲이 되었습니다.
적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큰숲이 되기까지
SK의 역사와 창업회장님, 선대회장님의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SK기념관
SK Heritage Museum

1층

SK의 전신인 선경직물
창업 당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연출한 공간



창업의 순간

전쟁의 폐허에서 부서진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직기로 시작된 불굴의
창업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층

기업확장과 다각화를 통해 SK성장의 밑거름이 된
1953~1973년까지의 성장사를 소개하는 공간



그룹의 태동과 성장기들의 마련

작은 직물공장에서 시작하여 명실상부한 섬유기업 집단으로 도약한
선경직물의 성장사를 소개합니다.

집무실

선경직물 수원공장 본관에 있었던 집무실을 재현한 공간에서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원대한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하1층

1974~1998년까지의 성장사와 함께 SK역사의 테마별
하이라이트, SK의 현재와 미래 및 경영 철학을 소개 하는 공간



에너지·화학으로 한국경제의 대동맥이 되다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1974~1991년까지의 성장사를 소개합니다.

풍요로운 정보통신 사회를 열어가다

에너지·화학의 고도화와 정보통신사업 진출로 성장 동력의 양대 축을
확보한 1992~1998년까지의 성장사를 소개합니다.

불굴의 도전과 열정으로

지금의 SK가 있기까지 위기의 상황들을 곳곳이 헤쳐 나갔던 불굴의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따로 또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따로 또 같이 활약하고 있는 SK의 관계사와
SK의 해외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irit & Culture

SKMS, 사회공헌 등 SK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된 경영철학과
기업문화를 소개합니다.

Library

사보, 사사, 서적 등 SK가 걸어온 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istory snap

SK의 역사가 담겨 있는 장소에서 당시 선경직물 작업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공간입니다.

차량전시

최종건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용차량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모관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을 기리며 추모하는 공간



거목

패기와 지성의 쌍두마차라 불리웠던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형제경영을 기리는 조형물입니다.

최종건 창업회장 일대기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최종건 창업회장의
삶을 일화와 유품을 통해 소개합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일대기

일등국가, 일등기업을 꿈꾸며 나무를 기르듯 사람을 키웠던
최종현 선대회장의 삶을 일화와 유품을 통해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애 깊은 형제인 동시에 손발이 잘 맞는 사업 파트너였던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돌아봅니다.

두 분을 기리며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전의 말씀과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두 분을 회고하며 기립니다.